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2면에서 계속)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재일동포들은 이런 시대에 사는 공민적근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 통일과 나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떨쳐 나셔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 나서는 제일 중차대한 애국사업입니다.

총련의 조국통일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시고 견지하여 오신 하나의 조선로선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민단》을 비롯한 조직밖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여 통일애국력량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들의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총련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조직들과의 민족적유대와 련계를 긴밀히 하여 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해외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수행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분렬주의책동을 규탄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날과 달이 다르게 시간을 다루며 몰라보게 변모 되는것이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찬 현실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살아야 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절대적인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국의 첫 기쁨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공화국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고 대들보가 되어준 우리 인민의 불굴의 군상속에는 재일동포들의 모습도 력력히 새겨져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강성과 번영에 이바지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주체혁명위업, 총련애국위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총련대외사업의 기본임무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 인민들속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의 평온과 안정을 보장하는것입니다.

총련은 일본의 각계인사들과의 사업을 신축성있게 벌리고 민주세력들,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계속 늘어내야 합니다.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에서는 지역대외사업에도 웅대한 힘을 넣어 지방자치체들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총련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일본주재 외국대표부들과의 사업을 용의 주도하게 진행하는것과 함께 국제무대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활동에 대한 지지찬동의 목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중대한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사상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진전동력을 배가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로 가는 지름길은 오직

하나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달하는데 있습니다.

위대성교양, 애국주의교양, 조선민주주의적교양, 재일조선인민운동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 신념교양은 총련사상사업의 기본내용입니다.

총련에서는 새세대들을 비롯한 동포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과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의 내용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알심있게 진행해나가며 위대성교양을 하면서도 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을 하고 조선민주주의적교양을 하면서도 재일조선인민운동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애국주의교양을 우리 국가제일주의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기관들에서 민족최대의 명절들과 공화국창건기념일, 총련결성기념일 등을 맞으며 실정에 맞게 국가제양식을 전통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들에서도 우리 국가의 상징물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입학식과 졸업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자기 손으로 국기도 펴워보게 하여 그들의 소중한 꿈이 언제나 사회주의조국과 잇닿아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진행되는 총련의 선전문화사업에서 공식화된 방법이나 만능의 처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총련에서는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며 동포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교양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출판선전물들의 침철력과 견인력을 부단히 높여 나가야 합니다.

조선신문사와 조선통신사에서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더 많은 동포들에게 조국소식, 동포소식을 신속히 전해주며 우리의 문화가 중단없이 파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과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선전문화담당기관들과 예술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지방가무단들의 공연과 각종 문예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들로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총련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들로 다진다는것은 그 어떤 외부적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동포들의 삶과 행복을 굳건히 지켜내는 철용성으로 만든다는것을 말합니다.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참모부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 지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총련중앙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제일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만 드림없이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며 조직내부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대외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핵심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현본부들의 조직장악력과 실천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현본부는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지역적지도단위이며 총련중앙의 지역별 보좌단위입니다.

현본부들에서는 아래단위들에 대한 사업체계를 더 정연하게 세우고 지도방조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중앙의 결정과 지시가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부들의 지역적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여 중소본부들이 일떠서고 용을 쓰는 새 모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지부중시, 분회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광채를 눈부시게 뿌리는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부를 각계층 동포들속에서 든든히 받들 붙인 지부, 동포핵심들이 주동이 되어 움직이는 지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부들에서는 비전임일군들을 적극 인입하여 활동력을 더욱 높이며 지부경쟁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 모든 지부들이 전체대회결정판칙의 실제적인 집행단위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말단기층조직인 분회가 힘을 내야 전 조직이 강화되고 동포사회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되어나갈수 있습니다.

분회건설의 가장 리상적인 목표는 위대한 진리로 굳게 결합되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따뜻한 동포동네로 만드는것입니다.

총련에서는 분회대표자대회를 전체대회 못지않게 중시하며 분회일군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분회를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분회들에서는 분회강화를 위한 4대과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애국애족창조운동을 일관성있게 벌려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련의 계층별 군중단체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기업과 생존의 혈치 않은 부담을 걸머지고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동포상공인들과 새세대 청년들, 동포녀성들의 뜨거운 진정과 애국심을 떠나서 총련의 번영과 흥하는 동포사회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총련의 군중단체들에서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항상 자각하고 모든 회원, 동맹원들이 전세대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을 끝까지 이어나가도록 하는것과 함께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대중운동을 왕성하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의 내오를 백배해나가야 합니다.

동포상공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주력군입니다.

상공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는 동포상공인들의 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적실한 대책을 따라세우며 세계경제발전동향과 추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전문화수준을 높여 동포들의 상공업활동을 실리가 나게 방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젊은 상공인들과 학부형세대들을 망라하고있는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주력후비대입니다.

청년상공회는 결성초기에 들었던 구호 《유족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꽃봉오리들의 미래를 위하여》를 청상회운동의 기본종자, 영원한 주제로 들고나가야 합니다.

청년상공회에서는 새 교복을 떨쳐입고 우리 학교로 가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총련의 미래가 비친다는것을 분분초초 명심하고 민족교육지원사업을 계속 선두에서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로 향한 영예로운 진군길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기치는 마땅히 동포청년들이 들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에서는 각급 조직들의 자립성과 독자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동포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동포사회를 젊음이 약동하는 청년관, 새세대관으로 들뜨게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도 일본대학들에 다니는 동포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꾸준히 벌려 그들이 조선의 넋, 민족의 얼을 지니고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은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총련의 가장 큰 군중단체입니다.

자녀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고 민족적자존심을 키워주는 첫 스승도 동포녀성들이며 동포자녀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 민족교육의 화원을 제일 품을 들어 가꾸는 원예사도 다름아닌 재일조선녀성들입니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에서는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모든 애국애족활동을 조직전개해나가며

재일동포사회를 민족성이 강하고 화기가 넘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드는데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녀성동맹에서는 애국사업실천에서 단련육성된 젊은 동포녀성들을 적극 내세워 그들이 재일조선인민운동의 한쪽수레바퀴를 대를 이어 역세게 떠밀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지휘성원인 총련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스스로 걸머지고 애국의 길에 나선 직업적인 정치활동가들이며 우리 조국이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해외혁명동지들입니다.

우리 조국은 총련일군들에게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존엄과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으며 모든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조국과 민족이 부여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사업을 뼈심을 들여 잘해 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고 하늘처럼 신성히 떠받들며 언제나 동포들속에서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해나가야 합니다.

늘 동포들속에서 있으면서 혈육들과 집안일을 의논 하듯이 동포들과 무릎을 맞대고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방도를 찾으며 그들의 정신력을 발달하여 천사만사를 풀어나가는것을 습벽화하여야 합니다.

자기 관한 동포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그에 맞게 천가지, 만가지의 적중한 사업방법을 다 찾아 군중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을 무한히 존대하고 존경하여야 하며 동포군중을 거울로 삼아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동포들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동포들의 행복한 생활과 안위를 위해 혼신을 다 바치는 성실하고 근면한 심부름군이 되어야 합니다.

동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 일군들과 동포들사이에서 오고가는 따뜻한 정이 곧 총련의 힘입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의 요구가 백가지, 천가지 이라고 해도 어느 하나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그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동포들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되어주고 생활상고충을 겪는 동포들에게는 자별한 형제, 자매가 되어주며 동포들이 더위하면 산들바람이 되어주고 추위하면 우등불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어려운 동포일수록 더 원심을 쓰고 이그리진 동포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생활상고충과 마음속옹어리를 풀어주어야 하며 높은 인격과 넓은 도량으로 동포모두를 품어안아 애국애족의 한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은 우리 동포들의 모든 꿈과 리상을 다 이루어주고싶어하는 조국의 간절한 당부를 정히 새겨안고 동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 힘차게 매진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각별한 정을 기울여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의 노래가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총련부흥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귀중한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더욱 용기백배 정신해 나아가리라하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가 재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위대한 전환의 리정표로 빛나게 장식되기를 바랍니다.